

# 산문박의 11월

## 연극배우 김갑수 씨

**“손해가 된다 해도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행하라”는  
만해스님 말씀  
가슴에 항상 새겨**

“피차 살자고 한 짓 아니겠는가,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인자와서 생각하면 피차 얽힌 사람 죽은것밖에 현안이 없지않은...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별경이사상이 뉘신지도 모르네. 하나 그쪽도 잘한건 없어, 말끝마다 사립사는 세상 만든답서 어차 사람목숨 알갈 과리목숨 취급인감, 광릉 고것이 그렇쿠런 싶다면야 왜 이쪽신 그리 못하졌는가, 야그를 들은게 사람들이 등을 돌린답서, 니미 겨우 고런 세상 만들자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단가.”

은신처로 만든 시골집 지하공간, 좌익주의자 빨치산 형의 총부리 앞에 우익청년단 감찰부장 동생 영상구가 뱀어내는 혈에대한, 세상에대한 체념적인 외침이다.

짧게 깎은 머리, 어눌한 표정, 낡은 가죽옷을 입은 절렁절렁한 행동. 영화 '태백산맥'에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주는 위암스의 전라도 사부리로 토해내던 영상구. 그가 바로 배우 김갑수다. 못배운 우익단체 앞잡이 영상구역을

준비기간 4개월동안 만해스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파고다공원, 심우장 등 이곳저곳을 다녔고 만해의 시를 읽고, 관계는문자료를들 섭렵했다. 그리고 3개월의 공연기간동안 그는 내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생을 바쳤던 강인한 만해로 다시 태어났다.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하더라도 옳지않다 생각하면 행하지 말고,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하더라도



사진을 보며 자신을 가다듬곤 했다.

못배운 무지렁이 영상구와 민족의 아픔을 증생과 함께 펼쳐내고자했던 만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 방황하는 천재시인 이상, 극과 극을 달리는 폭넓은 연기력은 4대사 한마디없는 단역에도 온 정열을 다하며 수많은 나날을 연습에 쏟았던 그의 팍팍물들이 엮여 낸 작품들이다.

그는 오는 7월 뮤지컬 '님의 침묵'에서 다시 만해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

지난 84년 20대에 표현했던 만해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다시 나타난 만해스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 “남의 인생 제대로 표현하려면 환생한다는 마음으로...”

## 연기 기술자 되기보다 창조자 목표로 정진

위해 그는 영화의 무대인 불교의 한 산배에 대해 복사해주며 촬영하는 틀틀이 전화로 전라도 사부리를 공부하고 소설 태백산맥을 읽어내었다.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전라도 사부리를 뱀어내는 그는 놀랄게도 순수 서울토박이다.

### 대중상 남우주연상

연기인도 어차피 자기내면의 수련을 통해 자기혼자 수행의 길을 가는 수행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일까. 연기를 시작하면 그는 제일 먼저 연기 이외의 모든 일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린다.

많은 수행자들이 그들의 지나온 삶을 접어둔채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던 것처럼, 그 옛날 고타마 시달타가 부인과 아들을 뒤로하며 수행의 길로 떠났던 것과 같이 작품에 입할때 그는 일상의 높은 담을 넘어 자기만의 연기 세계로 수행을 떠난다.

84년 연극 '님의 침묵'에서 만해스님역을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다.

옳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행하라'라는 만해스님의 말씀을 그는 아직도 그의 뇌리속에서 연극대사의 한대목이 아닌 영원한 진리로 기억하고 있다.

“만해스님에대한 기록들은 거의 모두 다 보았죠. 만해스님께서 일본경사관사와 직접재판을 하던 기록까지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차츰 접근해가며 스스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김갑수. 머리속으로 인물을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영감을 떠올린다. 외면에서 부터 인물을 접근해가기도 하고 또 인물의 내면에서 연기작업을 시작할 때도 있다.

“만해스님의 역할은 그분의 사상, 그분의 내면세계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죠. 그리고 이번에 맡은 이상의 역할은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처럼 연기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지닌 그는 77년 현대극단 1기생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그동안 40여편

의 연극에 출연하며 동아연극상, 오영진연극상,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연극판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겨 태백산맥의 영상구역으로 청룡영화제, 춘사영화제, 백상영화제, 대중상영화제까지 상이상은 모두 받았다. 태백산맥이란 한편의 영화로 그가 영화배우 김갑수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력의 노력을 거듭한 필연적 연기법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현재 상영중인 영화 '금홍아 금홍아'에서도 촬영기간 내내 거의 머리를 감지않고 몸무게까지 줄여가며 고뇌하는 이상의 모습을 표현해내기에 그는 열중했다.

### '님의 침묵'서 만해役

“만해스님역을 맡아 삽발했을때 이제 드디어 내가 만해가 되는구나 하고 느꼈던 그 벅찬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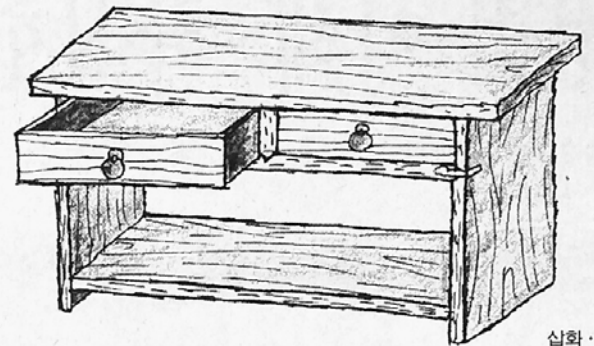
그는 연기가 잘 안될때마다 만해스님을 부르고 지갑속에 넣어둔 이상의

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제 스스로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을 때라 그분의 강인함에 치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시를 쓰셨던 시인으로 구도의 길을 걸었던 불제자로서 부끄러우면서도 무게있는 그분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김갑수, 그는 자신을 도구로 삼아 또 다른 세계를 연기로 펼쳐보이며 그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자신의 환생을 만난다.

“한 인물을 구체화시켜 형상화하는 연기의 가장 큰 밑거름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연기를 위한 방편으로서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진실이 담기지 않은 연기는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지요”라며 그 진실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그는 “기술자가 될것이나 창조자가 될것이라는 본인이 결정 해야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한 길을 걸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기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또한 창조자로서 말하겠죠. 허허...”

(이은자 기자)



삽화 · 이기선

## 마음 바르게 '열고 닫기' 곧 수행

우리나라의 말은 참으로 재미있다. 한 낱말이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옷장이나 책장의 서랍을 의미하는 것인데 빼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닫이'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문을 말한다. 하나이면서 둘의 용도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체(體)는 하나이나 그 용(用)이 둘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불교의 진리, 즉 체는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체는 불변의 것이며 불개(不改)의 것이다. 만약 체성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면 세상의 법칙이 혼란스럽게 된다. 세상의 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진리이어야 한다. 무원칙 무질서 이러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 어지러운만 만든다. 그러므로 체성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용도는 알맞게 상응되어야 한다.

진리 불변이나 쓰임새 다양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슬한 모양의 용기에 담기는 것과 같다. 둥근 항아리, 작은 사발, 갈다란 방, 큰 연못에 가득하게 채워진다 해도 물의 본성은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용기에 따라 담기는 것이다.

### 무원칙은 삶 어지럽혀

이처럼 체는 일여(一如)한 것이고 용은 응변(應變)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건을 저장 보관하는 용도를 가졌다면 보관할 때는 닫혀 있어야 하고 사용할 때는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배는 것과 닫는 것이 동시에 작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닫이도 마찬가지다. 문은 열기도 닫기도 할 수 없지요”라며 그 진실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그는 “기술자가 될것이나 창조자가 될것이라는 본인이 결정 해야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한 길을 걸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기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또한 창조자로서 말하겠죠. 허허...”

불교의 용어 가운데 개차(開遮)라는 것이 있다. 여는 것 닫는 것이란 의미다. 어떤 때 열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닫아야 하는 것일까. 이

개차란 말은 계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명의 삶을 무한히 자유롭게 하려면 열여 주어야 하고, 생명의 삶을 죽이려 하면 무조건 억제·저지하기 위하여 닫아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맞이하려고 망

우리는 차(遮)하는 마음을 공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열어놓는, 풀어주는 마음도 넓게 가져야 한다. 나의 작은 힘이 조금만 미쳐 상대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비켜서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바꾸어 줄 수 없다. 이곳이 나의 자리다. 어느 누가 말하거나 명령을 해도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제 지리는 잘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는 마음은 없는 것이다.

보살심으로 열고 닫자  
여는 마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서는 마음이다. 중생을 살리는 것이든 명제로 생각되면 즉시에 성취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닫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열어주는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자기 분위로 살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고 이행보시(利行普施)하러

나니의 악행을 자행하면 그 생명 자체가 가련하고 불쌍하기는 하지만 못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못된 사람을 닫아 잠고고 쳐치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는 차법(遮法)을 쓴다고 한다. 악을 저질러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이유불문하고 막아버리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차(遮)는 억제·저지·금지·경계라고 하겠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망종으로 말미암아 부질 없는 행위를 무조건 행동한다. 악탈, 간강, 살인, 방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맹동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살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망동적 악행이 일어날 때 합리적인 차단을 하는 마음이 한 순간이라도 늦게 발동하면 아비규환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는 마음이나 닫는 마음의 체(體)는 하나이다. 그 용(用)이 다를 뿐이다. 열면 속물이 트여 살고, 닫으면 속막혀 죽을 지경이면 열어주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우리 마음에도 여닫이가 있고 배달이가 있다. 그것은 개차의 문이다. 아무도 나의 보살심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지도 말고, 누구라도 나의 삼악심에서 뛰노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살의 마음으로 자재하게 드러나게 하는 '여는 문'을 세우고 삼독심에는 들지 않게 '닫는 문'을 막아보는 공부를 앞세워가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일은 자재롭게 자신을 키우는 것과 자신을 억제하는 판단을 바르게 인지시키는 수행법이다. 이 법이 개차(開遮)의 법, 여닫이의 도량을 익히는 길인 것이다.

**목재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26

**개차법**

▶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우·리·결·에·살·아·계·시·던·부·처·성·철·스·님·을·모·십·니·다

**성철 큰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80평생을 자기 성찰에 힘쓰신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생각하게 하는 성철스님의 깊은 뜻을 분청자에게 담아 전합니다. 한얼이 마련하는 문화보급기획!

성철 큰 스님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위해 당대 최고의 작가들께서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마련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을 한얼문화와 함께 만나십시오.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더욱 가깝게 느껴지실겁니다.

영원히 소장할 귀중한 작품으로 두번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귀한 빛을 더합니다.**

한얼 문화원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의 모습을 도자기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그 일을 빛내기 위해 기획 보급하여 살아있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4년 5월 37x89 3대짜기 공동작 (글, 그림, 분청자기) (호서 李九峯 글·황복 제작·공동원 그림) 우리시대 위대한 스승 ① 성철 큰 스님

**80개 한정 주문제작**